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에셀 47:1-5, 갈라디아서 1:6-10

정운돈 목사님

서론 : 갈라디아교회의 문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고린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다락방, 지교회 양육을 할 때도, 그 현장에 맞게 답을 주어야 한다. 바울이 메시지를 준 것도 그 현장에 맞는 답을 준 것이었다.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고 있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세속적인 것들이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음행을 하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갈라디아교회의 문제는 달랐다.

(1) 갈라디아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많았다. 유대교도로서 구약성경만 알고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런 이들을 요즘은 ‘메시아닉 유(Messianic Jew)’라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터키 동부지방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곳이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옮겨가서 살았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조선족들은 지금도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갈라디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의 고향도 갈라디아와 가까운 길리기가 다소였다. 그곳에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킨 인물로 자랐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선에 섰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다. 자기 고향에서 7, 8년 정도 있다가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교회였던 것이다.

(2) 그런데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던 중에, 갈라디아교회에 잘못된 복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교회에 임한 것이다.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은 역대급 이단이다. 나에게도 항상 메일을 보내온다. ‘한기총의 잘못된 것’하는 식으로 메일을 보낸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만화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거기 모인 자들이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자들이다.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다가 신천지에 가서 위로를 받아 버리니 열심히 따라다게 된 것이다.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에서는 가르쳐주는구나 하면서 듣는다. 사실 자기들이 도망다니서 못 가르쳐주었을 뿐인데 말이다. 교회에서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강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상을 계속 집어넣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고 밝히는데, 신천지는 밝히지 않고 교회로 온다. 몇 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다닌다. 목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경공부를 다니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목회자와 의논해야 한다. 갈라디아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을 믿고 다 믿는데,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절기도 지켜야 한다, 오직 예수지만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두고 강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신천지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거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여호와의 증인과 나는 대화를 해 봤는데 영이 다르다. 믿음도 없고 성경공부도 안 하고 도망다니는데 오직 예수 하게 된 큰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것을 축하한다. (웃음)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1.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활동했던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1)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특정한 형식, 종교적인 특정한 행위를 지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교육하는 게 아니라 협박으로 전달한다. 갈라디아교회의 경우, 오직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의 전통적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렸다. 유대인들이 제시한 대표적 율법적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하며, 안식일,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상홍증인회하나님의교회다. 이것은 규모는 신천지의 3, 4배 된다. 역사가 그만큼 길다. 교회가 부도났을 때 건물을 사들이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교회다.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단은 우리뿐이다. 복음 때문에 원니스되는 교단이 우리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다. 기독교 교회가 부도나서 이단에게 넘어가는데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바른 영이 아니지 않나. 그 속에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소명, 사명, 천명의 작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식교도 마찬가지다. 안식일을 몇 번 빠지면 지옥간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자유를 주지 않나? 주일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은혜기 때문이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일을 지키는 마음이 이단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교회에 물었다. “몇 번 빠지면 지옥가요?” 대답을 못 하더라. (웃음) “유월절 다 지키세요? 빠진 적 없어요?” 빠졌다고 하더라. “지옥 가겠네?” (웃음) 내 취미 중의 하나가 이단 놀리는 것이다. (웃음) 이러다가 뺨을 세 번 맞았다. (웃음) 갑자기 날아오니까 못 피했다. (웃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놀린다. “지옥이 없다고 믿으시지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기분나빠하지 않나? “없는 지옥 가는 것을 왜 기분 나빠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갈라디아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현장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다. 그 대표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게 오래된 문제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 과학적, 이성적으로 다 증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다 살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3)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다. 초대교회 당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도 믿고 예수의 신성도, 부활도 믿었다. 그런데 왜 이단인가? 너무 의로웠다. 그러면서,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악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사느냐 하고 꾸짖었던 것이다.

① 그와 그 제자들은 원죄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한다. 양보하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다. 다 해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

② 또 그들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말 실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③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유의지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천주교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황 무오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황은 죄도 없고 실수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사람들이 몰린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욕심도 안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종교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4)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 통일교의 문선명, 하나님의교회 안상홍, JMS의 정명석이 그랬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전에 있던 자들은 다 배도자요 실패자이며, 자기는 마지막 이긴 자로서 성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한다. 코웃음을 칠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거기 가서 성경공부를 한 사람은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램네프트 중 한 명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교재와 자료를 가지고 왔다. ‘외부유출금지’라고 해 놓았더라. 무슨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다. 참 복음을 가지고 그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왜인가?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전한 복음’

그러면 우리는 전통을 따라가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1:8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전과’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답을 쓰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읽고도 답을 틀리게 내고 있는 것들이 이단이다. 우리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전통을 따라야 하겠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다.

(1)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 나가야 하겠는가?

① 이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단과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복음은 저주와 재앙에서 인간을 보호한다. 귀신의 울무인 무속, 점술, 우상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듣더니, 타로점으로 받은 메시지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지 않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 이런 점술, 무속에 빠지면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박는다. 완전히 잡혀 버린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 없으면, 이사 방향도, 날짜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 버린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기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복음 안에서 회개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것이다.

②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교회 안으로까지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있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것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 없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그렇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다. 그들이 누렸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일곱 램네프트와 시대마다 복음을 사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사도바울과 그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 ‘우리’이다. 초대교회와 속사도, 어거스틴 같은 복음적 교부들

이 ‘우리’다.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개혁한, reformation, 다시 돌아간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다. 오늘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바로 ‘우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정리하자. 이단 사이비가 득실거리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1) 성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을 잘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직접 기독교서점에 가서 일일이 공부했다. 지금은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 자기들의 허점이 다 폭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간만 공부하면 된다. 성경의 흐름을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삶이 너무 이상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독교를 오해하게 된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3오늘을 하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까지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이다. 삶이 바르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되고 상차만 전달하게 된다. 갱신해야 한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 열매는 내적인 것들이다. 갈라디아서 5:22-23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다.

(3)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말씀의 요절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때, 흑암과 사단, 이단 세력을 막을 수 있다. 복음에 대한 요절 100구절,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이단들이 틀린 내용에 대한 구절을 100구절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러면 온전해진다. 신천지 강사 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더라. 하루에 200구절씩을 외웠다는 것이다. 신천지 강사들은 성경 요절이 줄줄 나온다. 틀린 것이지만. 그래서 복음 요절과 그들의 오류가 나타나는 구절들을 암송하자.

(4)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침입한 이단과 싸운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불신자와 이단 사이비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복음의 참된 말씀이 우리교회에서 흘러나와서 넘쳐흘려야 한다. 오금동, 송과 지역에 무릎까지 차고, 발목, 무릎, 허리에 차고, 이 말씀이 강이 되어서, 에스겔 47:12의 말씀대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될 것이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이단 사이비, 어둠의 세력에 게서 우리 가족을 지킬 뿐 아니라, 237개 나라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오직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언약하지만 세계를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방향을 맞추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 드리는 성찬예식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내가 먼저 치유되어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